

# 펫푸드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R&D 정책, 산업의 나아갈 길

소 경 민  
(국립축산과학원)

## Curriculum Vitae

- ▶ 2019~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관
- ▶ 2014~2017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학박사
- ▶ 2010~2018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 ▶ 2007~2010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전문계약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 ▶ 2006~2012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학석사
- ▶ 2000~2006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졸업(수의사)



# 펫푸드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R&D 정책, 산업의 나아갈 길

2026 Petfood Forum 시사점 기반  
한국 펫푸드 R&D-산업화 방향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소경민 연구관

Global Trend

Korea R&D  
Policy

Industry  
Direction

과학적 근거 ·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 정밀 영양관리 · 품질관리 · 산업 생태계

## 왜 지금 펫푸드 R&D인가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확대·고급화와 제도 기반 구축 필요

펫푸드는 신성장산업이자,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기준이 필요한 과학 기반 산업으로 전환 중

60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799만  
반려동물 개체수

8조원  
국내 연관시장 규모 추정

### 국내 여건 변화

- 양육 가구·개체수 증가
- 연관산업 시장 확대·고급화
- 국내시장 중심 성장
-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기반 부족

### 정책 대응

-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 성장 기반 구축
-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
- 펫푸드 특화제도와 생산 기반 강화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반려동물 먹이(펫푸드)에 특화된 표사·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캣보림 가입 청구 서비스, 다양한 캣보림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세계적·종합적 지원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23.8.)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23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 국제학술토론회('24.7.)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 공동 심포지엄**

■ 일시 2024년 7월 3일 수요일, 13:00~17:30  
 ■ 장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리움  
 ■ 주관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세부수진 내용 및 발표자
1부	13:00~13:30	등록
	13:30~13:35	개회(국립축산과학원 소경민)
	13:35~13:40	환영사(국립축산과학원장)
	13:40~13:45	축사(한국축산학회장)
	13:45~13:50	기념촬영
	13:50~14:20	주 제   한국(AAFCO) 및 유럽(FEDIAF)의 반려동물 사료관리 제도운영 소개 발표자   최희만(국립축산과학원)
	14:20~14:50	주 제   해외의 반려동물 사료안전 및 품질관리 발표자   Blanch Christopher(로말게)
14:50~15:20	주 제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제도 및 안전관리 발표자   Nomoto Hanan(농림수산성)	
15:20~15:30	휴식	
2부	15:30~16:00	주 제   한국의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전략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자   김기현(국립축산과학원)
	16:00~16:30	주 제   반려동물 사료관리 제도개선 대응을 위한 사료공정실의 전략 발표자   이상석(순천대학교)
	16:30~17:30	중점토론 및 질의응답 지명토론가   김현우(농림축산식품부), 황성수(국립축산과학원), 김용환(한국동물영양학회), Sato Chie(로말게), 토론회장   조진호(순천대학교)
	17:30~	마무리 및 폐회(국립축산과학원 소경민)

\* 사료: 소경민 연구관, 토론회장: 조진호 교수

국내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국내외 반려동물 사료 관리 실적과 국내 영양표준 설정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펫푸드 기술, 정책 전문가 참여**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펫푸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반려동물 사료, 영양기준 논의**  
 사료 영양가이드라인 및 국내 맞춤 적용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국가별 펫푸드 제도 운용 사례 발표**  
 국내외 표준 적용 경험에 대한 심층 발표와 실질적 사례가 소개되었다.

##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 ('24.9.)



2024년 9월, 농식품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사료단체, 수의 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원료 표시방법, 질환관리사료, 허위과장광고 범위, 영양표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기준 도입 논의

사료업계와 전문가들은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의견을 개진했다.

### 적용 방안 및 도전과제

현실적인 적용 방안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 소비자 기대와 요구 반영

정부는 펫푸드 소비자와 업계가 충분히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영양표준 설정 언론브리핑('24.10.)

2024년 10월,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실정에 맞춘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발표, 언론 53건이 넘는 보도가 이루어졌고, 높은 산업·소비자 관심을 이끌었다.

#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행정예고('25.4.)

## 01 행정예고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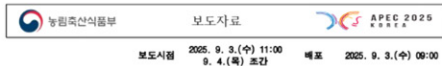
2025년 4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신설을 예고하며,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별도의 표시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02 국민 의견수렴

21일간, 사료 관련 고시의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었다.



#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 고시 개정 확정/공포('25.9.)



## 반려동물 사료, 알기 쉽고 믿을 수 있게 바뀐다!

-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대한 표시 기준 마련을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확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건강 단계별 성장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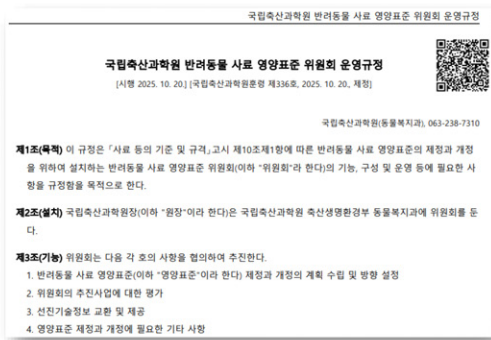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에 사료 표시제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해 **영양표준을 제도화**하였다. 2028년 9월부터 전면 적용되며 3년간 유예기를 운영해 펫푸드 업계의 적응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전면 적용 일정

2028년 9월부터 새로운 사료 표시 기준 시행, 3년간 유예기간 적용

### 산업 영향

개정고시 시행으로 고급화, 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 뒷받침



##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25.10.)

2025년 10월, 국립축산과학원은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 336 호)을 공식 제정하였다. 위원회는 반려 동물 사료 및 영양·생리 전문가 2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학연 협력 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영양표준 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26.2.5.)

2026년 2월 5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영양표준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방안, 영양표준 보완 계획,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 글로벌 펫푸드 트렌드 2026

Petfood Forum 기반 핵심 변화



## 글로벌 트렌드 ① 공급망·시장 다변화

글로벌 트렌드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망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 원료 수급 다변화와 신흥시장 중심 시장 다변화가 핵심



### Petfood Forum 주요 내용

- 보복관세, 비관세장벽, 물류비 상승, 국가별 인증·허가 요구 증가
- 중국 시장 성장 둔화, 일본 시장 경쟁 심화
-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시장 중심 시장 다변화 필요
- 정부/산업계 협력을 통한 통상협상, 수출 검역, 해외 전시회, 바이어 연계 강화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핵심 원료의 특정 국가 의존도 점검
- 국산 대체 원료 발굴
- 데이터 기반 품질 검증
- 현지 맞춤형 제품 전략
- 검역·등록·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

1. 공급망·시장

2. 원료·규제

3. 제조·품질

4. 기능성·정밀영양

5. 지속가능 원료

신규기능성 원료 확대에 따라 과학 기반 원료 평가체계 중요성 확대

**원료의 안전성·영양학적 적절성·제조공정·품질관리 자료가 핵심 경쟁력**

**Petfood Forum 주요 내용**

- AAFCO SRIS: 펫푸드 원료 심사 제도
- 원료에 대한 특성/제조공정/품질관리 자료 평가
-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원료 정의와 기준 마련
- peer review 안전성 자료, 사양시험 데이터, 독성/영양/급여시험 자료 중요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펫푸드 신규원료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제는 국내 펫푸드 신뢰도 확보의 출발점
- 기능성 표시, 원료 표시 등은 과학적 근거와 표시 적합성 검토 필요

1. 공급망·시장

2. 원료·규제

3. 제조·품질

4. 기능성·정밀영양

5. 지속가능 원료

출처: 2026 펫푸드 포럼 참석 결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배합 소프트웨어, 자동 검증, 이력관리 중심의 품질관리 전환



**반복 생산 가능성, 공정 적합성, 품질관리 데이터화가 제조 경쟁력을 좌우**

**배합 소프트웨어**

수작업·경험 중심에서 규칙 기반 관리

**자동 검증·이력관리**

원료 변경 또는 배합 수정 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정 조건 관리**

수분 조절, 혼합, 압출, 건조, 코팅

**제품 품질요소 최적화**

조직감, 파손율, 기호성, 영양소 안정성

원료

배합

압출

건조

코팅

완제품

1. 공급망·시장

2. 원료·규제

3. 제조·품질

4. 기능성·정밀영양

5. 지속가능 원료

효능 입증, 생체 데이터, 개체별 맞춤형 영양관리 중심으로 이동

**펫푸드는 기능성 표시 중심에서 실제 효능 검증, 생체데이터, 맞춤 영양관리 중심으로 전환**

<b>노령기 활력</b> 활동성·대사 건강, 일상 기능 유지	<b>장내미생물</b> 전신 건강 연결
<b>면역, 체중, 소화 건강</b> 건강상태별 기능성 영양관리 확대	<b>행동 안정</b> 일상적 스트레스 관리
<b>AI 기반 맞춤형 사료 설계·급여관리로 진화</b> 웨어러블/생체 데이터 기반 정밀 영양관리 부상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생애주기별 영양 요구량 연구 강화
- 장내미생물, 면역, 피부·피모, 구강 건강, 행동 안정 등 기능성 평가 필요
- 동물실험 및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 영양표준 기반 맞춤 영양관리와 기능성 소재 검증



1. 공급망·시장	2. 원료·규제	3. 제조·품질	4. 기능성·정밀영양	5. 지속가능 원료
-----------	----------	----------	-------------	------------

출처: 업푸드 자료(미국 펫푸드포럼 귀국보고회 / 참석 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영양성·기호성·안전성·품질 일관성을 갖춘 원료 개발 중요



**지속가능성은 단순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원료 검증과 제품화 문제**

**Petfood Forum 주요 내용**

- 동결건조, 업사이클 원료, 부산물 유래 대체 단백질 활용 확대
- 식품산업 부산물의 영양적 가치 재평가
- 고부가가치 용도 전환
- 일관된 품질의 업사이클 원료 공급 체계 필요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저활용 축산·수산 원료, 발효 부산물, 기능성 원료의 소재화
- 영양성·소화율·안전성·가공수율·소비자 수용성을 함께 평가
- 국산 대체 원료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연계

1. 공급망·시장	2. 원료·규제	3. 제조·품질	4. 기능성·정밀영양	5. 지속가능 원료
-----------	----------	----------	-------------	------------

출처: 2026 펫푸드 포럼 참석 결과보고서, KREI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

# 한국 R&D 정책과 연결점

영양표준-표시제도-기능성 검증-산업화 연결



구분	(신규)반려견, 요 펫푸드 산업 육성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27~31, 농진청)	(기존)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22~26, 농식품부-농진청)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기술개발단계	응용, 개발	응용, 개발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보건의료 (반려동물)	보건의료 (반려동물)
투자방향 관련분야	국가전략기술	글로벌R&D
사업목적	기능성 펫푸드 소재 제품 효능평가 실증기술 표준화 및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전주기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산: 34,200백만원</li> <li>※ 중사업비</li> <li>○ 사업기간: '27~'31</li> <li>○ 사업내용: 기능성 펫푸드 소재 제품의 효능평가 실증평가 기술 표준화 및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산: 46,186</li> <li>※ 중사업비</li> <li>○ 사업기간: '22~'26</li> <li>○ 양적 성장 추세인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li> </ul>
지원대상	농촌진흥청 농업법인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농촌진흥청 농업법인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과제 선정방식	지정공모	지정공모
수행주체	①출연기관, ②대학, ③국립연구소, ④대기업, ⑤중견기업, ⑥중소기업, ⑦기타 등 컨소시엄	①출연기관, ②대학, ③국립연구소, ④대기업, ⑤중견기업, ⑥중소기업, ⑦기타 등 컨소시엄
사업 추진체계	산·학·연·관 공동연구	산·학·연·관 공동연구
내외부 지적사항	한도 외 검토 중	26년도 종결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성) 기존 연구를 통해 확보된 영양표준 정보, 사료소재 및 평가기술, 시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산 기능성 펫푸드 소재 제품의 효능평가 실증 기술 확립과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li> <li>○ (자별성) (기초사업)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대상으로 영양·사료·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범용기술 개발 중심 - (신규사업) 현장 수요(산업, 소비자 등) 반영한 펫푸드실증, 펫헬스케어 중심의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li> </ul>	

# 한국 펫푸드 산업의 기회와 한계

시장 확대 속 R&D 기반과 산업 생태계 보완 필요



# 과학 기반 펫푸드 산업 생태계

원료-제조-기능성-품질관리-표시-규제-수출 연결



## 결론: 정책·연구·산업 연계 방향

한국 펫푸드 산업의 다음 단계는 시장 성장에서 신뢰도와 경쟁력 확보로 이동해야 함



“안전성·영양성·기능성·제조공정·표시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는 역량”